

#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 「한국관」의 건축경위 및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 프랑스 측 총무대원 미르렐 백작(Comte de Mimerel)의 「한국관」 설계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struction Process and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Pavilion  
in 1900 Paris Universal Exposition  
- Focused on the Plan of Korean Pavilion designed by Comte de Mimerel, the General Affairs Committee -

진경돈\* / Jin, Kyung-Don  
박미나\*\* / Park, Mi-Na

## Abstract

This study aims at clarifying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 Korean Pavilion was constructed at the 1900 Paris Universal Exposition, and major architectural features of the pavilion building. In particular, this thesis studies the construction history of the Korean Pavilion newly developed by Comte de Mimerel on the part of France following the sudden death of Baron Delort de Gléon during the construction of the Korean Pavilion, as well as architectural features of the draft design. The Korean Pavilion designed by Comte de Mimerel completely reproduces Keunjeongjeon of Gyeongbok Palace, faithfully complying with the then design tendency of the exposition. Mr. Young Chan Min, the Vice Chairman of the Seoul Organization Committee, positively participated in the construction process, and traditional carpenters in Chosun, together with Mr. Young Chan Min, were dispatched to Paris to engage in the construction of the pavilion building. This is substantially in contrast to the earlier design. According to the analysis in this study, although the Korean Pavilion designed by Comte de Mimerel was primarily built with the fund of the French Government and under the French architectural system, as a result of the Korean Government's positive participation in the construction process, it was decided to use Geunjeongjeon, the symbol of Chosun, as a model of the pavilion, and therefore, the Korean Pavilion was recognized by the Europeans as a monument of complex and sophisticated civilization. Furthermore, commercial and colonialistic expressions, which were found in the earlier plan, are rarely found in the Korean Pavilion designed by Comte de Mimerel, and we can see that this is the result of the attempt to fully reproduce Geunjeongjeon, the major building of the Chosun royal court, in building the Korean Pavilion.

키워드 : 파리 만국박람회, 한국관, 미르렐 백작, 민영찬, 모리스 쿠랑

Keywords : 1900 Paris Universal Exposition, Korean Pavilion, Comte de Mimerel, Min, Youngchan, Maurice Courant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본 연구는, 한국근대건축에 있어서, 해외에서의 공식적인 건축물로는 최초로 건축된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1900 Paris Universal Exposition) 「한국관」의 건축경위 및 실현된 전시

관의 건축적 특성을 명확히 밝히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는, 본 연구자의 파리박람회 「한국관」에 대한 일련의 연구 과정 중, 「한국관」의 건립을 위한 프랑스 측 총무대원인 그레옹 남작(Baron Delort de Gléon)의 초기 설계안에 대한 연구<sup>1)</sup>의 후속 부분이며, 「한국관」의 건축 도중

\* 정희원, 백제예술대학 교수, 동경대학 대학원 건축학전공 연구원, 공학박사  
\*\* 정희원, 동경대학 대학원 공학계 연구과 건축학전공 석사과정

1)진경돈·박미나, 근대초기 파리만국박람회(1900) 「한국관」의 건축과정과 초기설계안의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7권3호 통권68호, 2008년6월, pp.3-14.

그레옹 남작의 갑작스런 사망 이후, 프랑스 측의 미르멜 백작(Comte de Mimerel)에 의해 새로이 전개된 「한국관」의 건축 경위 및 설계안의 건축적 특성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1900년 파리박람회 「한국관」의 건축은, 초기부터 전적으로 프랑스 측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전개과정에 있어 각각 다른 건축 주체에 의해 초기 계획안과 실현된 계획안이 각각 존재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국관」의 초기 계획안은 프랑스 측 총무대원인 그레옹 남작에 의해 전적으로 주도된 것으로, 여기에는 그레옹의 한국전통건축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와 상업주의적 시각이 반영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sup>2)</sup> 그러나, 그레옹의 사망 이후, 미르멜 백작에 의해 실현된 「한국관」은 경복궁 근정전을 재현하고 있어 당시 박람회 외국관의 설계 경향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것과, 대한제국 측 부총재대원인 민영찬과 조선의 전통장인이 적극적으로 전시관 공사에 관여하는 등, 초기 설계안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상기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 「한국관」의 건축과정 중, 프랑스 측의 미르멜 백작에 의해 디자인된 실현안의 건축 과정과 특성, 그리고 그레옹 남작의 초기 설계안과의 비교고찰을 통해, 1900년 파리박람회 「한국관」이 지닌 건축사적 의미와 근대 초 프랑스의 조선에서의 건축 활동의 성격 등을 조명해 볼 수 있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논문의 구성은, 「한국관」의 건축과정에 있어서 그레옹 남작에 의한 초기계획안 이후의 과정, 즉 그레옹의 사망 이후의 전개과정과 미르멜 백작에 의한 새로운 「한국관」의 건축과정 및 건축적 특성에 대해 각 장을 통해 고찰, 서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 제2장에서는 그레옹 남작에 의한 「한국관」의 건축과정과 주요 특징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 있으며, 3장에서는 새롭게 프랑스 측 총무대원에 임명된 미르멜 백작의 새로운 「한국관」의 건축과정 및 한국 측 부총재인 민영찬의 역할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실현된 「한국관」의 본질적인 성격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4장에서는 미르멜 백작의 「한국관」의 건축적 특성에 대해, 전시관의 위치, 배치, 평면, 입면, 단면 등 당시의 건축도면을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1900년 파리박람회 「한국관」의 건축적 특성에 대해 서술하며, 그레옹 남작의 초기안과 미르멜 백작의 실현안을 비교고찰 함으로써, 근대기 해외에서의 최초의 건축물인 「한국관」의 건축사적 의미와 그 주요 특성을 변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1900년 파리박람회 「한국관」에 대한 주요 자료로서는, 당시의 건축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프랑스 측 정부 부서간 왕복서신<sup>3)</sup>들을 1차 자료로 삼고 있으며, 이들 자료는 최근

2)Ibid., pp.13-14. 결론 참조.

한국의 국사편찬위원회에 의해 선별적으로 번역, 출판되었다.<sup>4)</sup> 1900년 「한국관」에 대한 최근까지의 국내외의 선행연구로는, 미술사 분야<sup>5)</sup>와 동아시아 지역연구분야<sup>6)</sup>에서의 연구가 있으며, 최근 본 연구자에 의해 「한국관」의 전시관 건축 자체에 대한 일련의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sup>7)</sup> 본 연구에서는, 상기 프랑스 정부 부서간 왕복문서의 내용 중, 미르멜 백작의 「한국관」에 대한 건축경위와 도면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문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며, 본 연구자의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그레옹 남작의 초기안과 대비되는 미르멜 백작의 실현안에 대해 분석을 행하고자 한다.

## 2. 「한국관」의 초기계획안의 건축특성 요약

### 2.1. 그레옹 남작에 의한 「한국관」의 건축경위

본 논문의 진행상, 이전 연구와의 논의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레옹 남작<sup>8)</sup> 사망 이전의 「한국관」의 경과과정을 살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 <표 1><sup>9)</sup>과 같다. 아래 표와 같이, 1900년 파리박람회에 한국이 참여하게 된 것은, 1893년 프랑스의 공식 초청에 의한 것이며, 참가가 결정된 것은 1896년 4월이었다. 이후, 전시관 건립에 대한 모든 사항은 프랑스 측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1896년 5월 사업자인

3)당시의 프랑스 정부 부서간 왕복문서들은, 프랑스 국립고문서관이 소장한 파리박람회 한국관에 대한 정부문서(Archives Nationales de France, Paris. F/12/4224, F/12/4357), 프랑스 외무성 고문서국이 소장한 외무성문서(Archives du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Affaires diverses commerciales, circulaires diverses E27 490 C-D, 1894-1901), 그리고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소장한 관련문서(Bibliothèque Nationale, Fol V 4222) 등이 있다.

4)한불관계자료-주불공사·파리박람회·홍종우(한국근대사자료집성4), 국사편찬위원회, 2001년. 본 연구에서는 상기 국사편찬위원회에 의해 출판된 자료 중, 누락된 문서는 프랑스 측 원본 자료를 참조하고 있다.

5)김영나, 서양과의 첫 만남, 한국근대미술과 시각문화, 조형교육, 2002년, pp.13-56. 이 연구에서는 주로 전시회의 참가물품을 중심으로 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6)Daniel Kane, Display at Empire's End: Korea's Participation in the 1900 Paris Universal Exposition, in Sungkyu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Vol.4. No.2, 2004, Academy of East Asian Studies, pp.41-66. 이 연구에서는 1900년 파리박람회에의 한국의 참여와 이를 둘러싼 국제적 정치역학관계를 다루고 있다.

7)Kyungdon JIn·Mina. Park, A Literature Study on the Korean Pavilion at Paris 1900 Exposition Universelle, in The 6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Architectural Interchanges in Asia. 25th October 2006, Daegu, pp.522-527; 진경돈·박미나, 근대초기 파리만국박람회(1900) 「한국관」의 건축과정과 초기설계안의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7권3호, 통권68호, 2008년6월.

8)Daniel Kane, Op. Cit., p.54; 근대초기 파리만국박람회(1900) 「한국관」의 건축과정과 초기설계안의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Op. Cit., p.6. 그레옹 남작(Baron Delort de Gléon)에 대해서는 프랑스 측 문헌에서도 명확히 언급되어 있지 않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파리주재 루리나(C. H. Roulina) 총영사에 의해 「한국관」의 운영자로 발탁되었다는 것과, 1889년 파리박람회 때 이집트관을 설치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9)<표 1>은, 각주7)의 본 연구자의 선행연구로부터 요약, 정리한 것이다.

<표 1> 그레옹 남작에 의한 「한국관」 건축경위 요약

주요 내용	일자	진행 내용	발신/수신
조선의 박람회 참가결정	1893. 5. 7	박람회 참가의 권유와 1889년 파리박람회 자료요청	프랑스 영사/외무성장관
	1893. 7. 12	박람회 참가의 독려	프랑스외무성/상공부장관
	1894. 6. 22	박람회 참가의 독려	프랑스외무성/상공부장관
	1896. 1월중	공식적인 참가요청서 조선 측에 전달	조선외부대신/프랑스영사국
	1896. 1. 28	조선 측의 박람회 참가를 프랑스 외무성장관에 보고함	박람회사무국/외무성장관
위원회의 구성	1896. 4. 4	조선 측 참가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보고함	외무성통상과/외무성장관
	1896. 5. 23	- 그레옹 남작을 한국관의 설치, 운영자로 임명함. - 사업가 루리나를 파리주재 한국총영사로 임명함. - 한국관 건축 관련 위원에 임명함.	프랑스 공사/외무성장관
	1896. 6. 3	그레옹 남작을 대표로 하는 한국위원회 및 서울사무소의 설치를 확정함	프랑스 공사/외무성장관
	1899. 7. 2	박람회 한국위원회 및 서울사무소의 위원을 확정함	박람회한국지부/외무성장관
	1899. 9. 5	박람회 한국관 건축위원회의 완벽한 명단이 확정됨	총영사 루리나/외무성장관
그레옹 남작의 한국관의 설계, 공사	1898. 11. 25	- 그레옹 남작에 의한 한국관의 건설을 고종으로부터 허가 받음 - 그레옹의 의견서 제출 - 공식부본의 제안: 건축모델은 고종의 여름궁전 - 흥미위주의 토속적 부분: 건축 모델은 인천제물포의 조선인 가로	그레옹 남작/박람회개발총국장
	1899. 1. 18	그레옹 남작의 한국관 구상이 박람회 개발총국에게 통고서 형식으로 제출됨	개발총국건축소장/박람회 개발총국장
	1899. 5. 24	그레옹 남작에 의한 한국관 도면 일체가 박람회 측에 제출됨	개발총국건축소장/박람회 개발총국장
	1899. 6. 1	그레옹 남작의 한국관 도면일체가 박람회 측에 의해 허가됨	개발총국건축소장/박람회 개발총국장
	1899. 6. 15	그레옹 남작과 프랑스 통상성 장관 간에 협약서가 체결됨	
	1899. 6월 이후	그레옹의 보좌원 트레몰레가 한국을 방문하여 건축탐방 및 전시물품을 구입함	
	1899. 11. 9	그레옹 남작의 사망에 대한 통보와 이후 한국 측의 계획을 문의 함.	프랑스외무성장관/주한 프랑스공사
그레옹의 사망과 사후조치	1899. 11.	한국정부는 한국관 공사를 계속할 것을 통보함	한국외부대신/프랑스공사
	1899. 11. 18	한국정부의 공사 지속 의지를 프랑스정부에 보고함	프랑스공사/외무성장관
	1899. 11. 29	한국정부의 전시관 공사경비의 확인과 민영찬의 파견	프랑스공사/외무성장관
	1900. 1. 5	그레옹 남작의 한국관의 철거를 결정함	박람회총재위원/그레옹부인
	1900. 1. 29	한국관의 새로운 부지를 결정함. 그레옹의 한국관은 철거됨.	박람회총재위원/박람회재정국장
1900. 2. 7	그레옹 남작의 한국관 계약이 공식적으로 파기됨	산업제신성/박람회총재위원	

루리나(C. H. Roulina)가 파리주재 한국총영사로 임명되었고<sup>10)</sup>, 그레옹 남작에게 「한국관」에 대한 전권이 맡겨졌으며, 파리와 서울에 각각 건축위원회가 설치됨과 동시에, 다음 <표

10) Paul Gers, 1900. Corbeil: E. Crete, p.206. 루리나는 파리에서 다이아몬드 세공업을 하던 인물로서, 1900년 여름까지 파리주재 대한제국의 영사로서 프랑스와 대한제국 간의 중재자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2>11)와 같이 「한국관」 건립을 위한 위원들이 임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1900년 파리만국박람회 「한국관」 건축위원회 위원명단

위원회	명칭	이름	지위/직업
프랑스 파리 위원회	위원장	C.H. Roulina	파리주재한국총영사
	위원	E.E. Méne	의사
		Maurice Courant	학자/공서관원
		Polyeucte Vidal	군인/지휘관
	총무대원	Delort de Gléon	남작
	보좌원	A. Tremoulet	Gléon의 보좌역
	총서기	Léon Beaupe	
한국측 준비 위원회	총재대원	민병석	정2품/의정부참찬
	부총재대원	민영찬	종2품/법부판
	위원	고영근	종2품/중추원의관
		윤덕영	정3품/봉상사부제조
		이인영	정3품/군부외국과장
		이근배	종3품/중추원의관
	정영두	정6품/관원	

이후, 그레옹 남작에 의한 「한국관」의 제안서가 박람회 본부에 제출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한국관」을 「공식적인 부분」과 「흥미위주의 토속적 부분」으로 구성하겠다는 것과 각각 건축모델로서 고종황제의 여름궁전과 인천제물포의 조선인 거리를 상징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그레옹의 구체적인 계획안<sup>12)</sup>은 1899년 5월 24일 도면으로 작성되어 제출되며, 동년 6월 1일 박람회 측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그레옹과 박람회 측간의 구체적인 협약서가 체결됨과 동시에 그레옹의 보좌원인 트레몰레(Alphonse Tremoulet)<sup>13)</sup>가 한국에 파견되어 조선전통건축의 탐방 및 전시물품의 구입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을 거쳐, 그레옹의 「한국관」은 동년 7월말-8월초 사이에 착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레옹은 1899년 11월 9일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며, 다급해진 프랑스 측은 「한국관」의 새로운 개발자를 모색함과 동시에 그레옹과의 협약을 파기하고, 건축 중이던 「한국관」을 철거하기로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대한제국정부는 부총재대원인 민영찬을 현지로 급파할 것을 프랑스에 통고하였고, 프랑스 측은 새로운 총무대원의 임명, 기존 부지의 변경 등, 「한국관」은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1)진경돈·박미나, Op. Cit., p. 7. <표 1> 참조.  
12)한불관계자료-주불공사·파리박람회·홍종우, 국사편찬위원회, Op. Cit., p.197. 한국관에 대한 도면 제출 이전에 전시관의 전체 운영 계획서가 1899년 3월 12일 박람회 총재위원 사무소에 제출되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그레옹과 박람회 총재 간의 구체적인 협약서가 작성되었다.  
13)Daniel Kane, Op. Cit., pp.55-56. 트레몰레는 인도차이나 등지에서 하급 관리로서 봉직했으며, 54세에 총무대원 그레옹 남작의 보좌원으로 임명되었으며, 1899년 6월경 서울에 도착하여 그레옹의 주문에 따라 전시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을 구입해 갔다.

## 2.2. 그레옹 남작에 의한 「한국관」의 주요 특성

그레옹의 「한국관」은, 고종의 여름궁전을 모델로 한 「공식적인 부분」과 인천제물포의 조선인 골목을 모델로 한 「홍미위주의 토속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sup>14)</sup>, 그 주요 건축적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 <표 3><sup>15)</sup>과 같다.

여기서, 「홍미위주의 토속적인 부분」은 인천제물포의 조선식 전통골목길을 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전시내용은 조선의 전통주택, 전통상가, 골목길, 그곳에서의 전통축제, 전통식상거래행위, 거리를 활보하는 조선인의 모습, 야외극에 등 활기 있고 역동적인 조선전통가로의 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형식은 그레옹의 1899년 파리박람회 이집트관의 카이로 골목길 구성과 동일한 방식으로서, 전시형식은 「재현」 방식을 취하고 있었으나, 여기에는 조선전통문화에의 호기심과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식민지주의적 이념이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16)</sup>

한편, 「공식적인 부분」은 조선 산물의 전시를 위한 것으로서, 조선정부의 수집품, 조선의 현대적인 것과 고전적인 예술품, 농업, 광업, 산업, 상업에 관련된 광범위한 생산품 등 주로 조선특산품의 전시가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건물은 고종 황제의 「여름궁전」을 건축모델로 삼고 있었으나, 계획된 형태는 조선전통건축과는 상당히 이질적인 것이었으며, 여기에는 당시 유럽에서 유행했던 시노와즈리(chinoiserie)의 이미지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밝혀졌다.<sup>17)</sup>

그러나 그레옹의 계획안은 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건축이 시작된 지 3개월여 만에 중단되며, 이후 「한국관」의 건축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그 주요 변화는 박람회 부지의 축소, 새로운 건축주체의 등장, 그리고 조선전통건축의 충실한 재현 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초기의 프랑스 측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한제국 측이 전시관 건축의 일정부분을 주도하게 됨에 따른 변화였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그레옹의 계획안은 실현된 「한국관」과 큰 차이를 보이게 되며, 이에 대해서는 이후의 장을 통해 고찰해 가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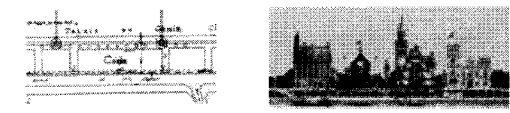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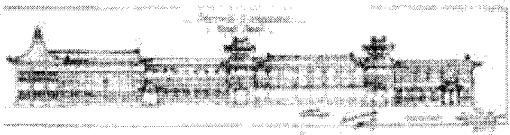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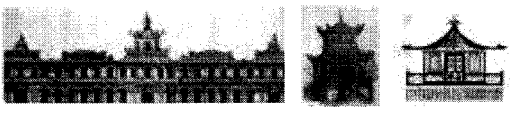
14) Delort de Gléon to Delaunay-Belleville(25 November 1898), French National Archives, Series F/12/4357, Corée; 『한불관계자료-주불공사·파리박람회·홍종우』, Op. Cit., pp.256-257. 「공식적인 전시관은 고종 황제의 여름궁전 양식을 그대로 재현한 커다란 별장으로서 한국정부의 수집품(중략) 생산품을 전시합니다. (중략) 전시관의 두 번째 부분은 한국의 활기에 넘치는 골목, 즉 제물포에 있는 길을 구현(하며), (중략) 매우 빈번하게 열리는 한국인의 축제를 재현할 것입니다。」(이하, 본 논문에 게재되는 프랑스 정부 공문의 표기와 번역, 인용한 발췌문은 한국국사편찬위원회의 상기 자료의 표기와 내용을 따르며, 여기에 누락되어 있는 문서는 원문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15) 진경돈·박미나, Op. Cit., pp.7-13. <표 3>은 본 연구자의 논문 내용 중 3.2, 3.3, 4.2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16) Ibid., pp.9-10.

17) Ibid., p.11.

<표 3> 그레옹 남작의 「한국관」의 주요 건축적 특성

전시관	그레옹의 전시관 구성	건축의 특징 및 이념
그레옹의 1899년 파리박람회 이집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집트 카이로의 골목길의 구성</li> <li>- 전시관은 전통 모스크 형태로 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구성은 골목길과 전시관으로 이루어짐</li> <li>- 이집트 전통건축을 상업적으로 사용함</li> <li>- 전시관은 「모방」 또는 「재현」 방식을 취함</li> <li>- 그레옹의 상업적 식민지주의 이념이 반영됨</li> <li>- 식민지 전통문화에 대한 우월적 호기심, 상업적 이용이 나타남</li> <li>- 이집트 전통문화의 시각적 격하로 결과함</li> </ul>
그레옹의 1900년 파리박람회 한국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미위주의 토속적인 부분」</li> <li>- 건축모델: 인천제물포 조선인 가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구상: 전통조선식 가로의 재현</li> <li>- 전시내용: 전통주택, 전통상가, 골목길 전통축제, 전통식 상거래행위, 활보하는 조선인, 야외극에의 재현 등 활기에 찬 조선전통가로의 재현</li> <li>- 해당부지: 박람회부지 465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레옹의 1899년 이집트관 카이로 골목길 구성과 동일한 방식임</li> <li>- 전시는 「재현」 방식을 취함</li> <li>- 조선전통문화에의 호기심과 상업적 이념이 결합되어 나타남</li> <li>- 전시내용은 주전시관의 정적인 분위기와 달리 역동적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식적인 부분」</li> <li>- 건축모델: 고종황제의 여름궁전 (단, 건축모델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음)</li> <li>- 계획구상: 조선전통건축물의 재현</li> <li>- 전시내용: 조선정부의 수집품, 조선의 현대적인 것과 고전적인 예술품, 농업, 광업, 산업, 상업에 관련된 광범위한 생산품의 전시</li> <li>- 해당부지: 박람회부지 903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전통건축양식의 2층 규모임</li> <li>- 2개의 익부와 2개의 탑문, 2개의 주출입구로 구성</li> <li>- 조선전통과 상이한 입면구성, 상이한 지붕형식, 상이한 디테일이 주요 특징임</li> <li>- 19세기 유럽에서 유행한 시노와즈리의 건축과 유사함</li> <li>- 고종의 여름궁전과의 상관성을 발견할 수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식적인 부분」의 도면</li> </ul>  <p>대지도                      한국관 전면의 외국관</p>	
	 <p>주전시관 입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노와즈리(chinoiserie)와의 유사성</li> </ul>  <p>시노와즈리(중국풍)의 건축의 구성 및 디테일</p>	

### 3. 미르멜 백작에 의한 「한국관」의 건축경위

#### 3.1. 한국 측 부총재대원 민영찬의 파견과 주요 임무

1899년 11월 9일, 그레옹 남작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박람회 개막을 목전에 둔 「한국관」의 건축에 큰 위기가 닥쳐 오게 되었다. 다급해진 프랑스 측은 외무성장관이 직접 한국주재 플랑시 공사(Victor Collin de Plancy)에게 공문을 보내 그레옹의 사망 이후 한국정부의 계획을 문의하는 등, 새로운 「한국관」의 건설을 위해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sup>18)</sup> 당시, 한국정부로서도 「한국관」의 건축공사를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프랑스 측에 전달하며<sup>19)</sup>, 파리주재 한국 총영사 루리나에게 재공사를 위한 경비의 확인과, 한국 측 부총재대원인 민영찬을 파리로 파견할 것을 결정하는 등 한국정부도 「한국관」의 건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변화를 보이게 된다.<sup>20)</sup>

결국, 그레옹 남작의 사후, 그와 박람회 간의 계약이 해지되어, 공사 중이던 전시관은 철거되었으며<sup>21)</sup>, 1900년 1월 29일, 「한국관」의 새로운 공사를 위한 부지가 축소되어 결정되었고, 이전의 부지는 영국과 프랑스의 전시를 위해 임차되었다.<sup>22)</sup> 이와 같이, 박람회 개관을 목전에 둔 다급한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전시관의 원활한 공사를 위해 민영찬을 파리로 파견한다. 1899년 11월 29일 플랑시 공사가 프랑스 외무성 장관에게 보낸 문서에 의하면, 당시 민영찬의 임무는 파리주재 한국 총영사 루리나(C. H. Roulina)와 함께 「한국관」의 공사 완공과 프랑스 지부에 협조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sup>23)</sup> 이에 대해, 1900년 1월 12일자 한국주재 프랑스 영사국의 르페브르(A. Lefèvre)가 프랑스 외무성장관에게 보낸 공문에 의하면, 민영찬이 1900년 2월 28일 파리에 도착할 것임을 알리고 있다.<sup>24)</sup> 즉, 그레옹 사후의 「한국관」은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중재와 참여

하에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특징을 보이게 된다. 결과적으로, 「한국관」 건립에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게 된 것은, 그레옹 남작의 사망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초기의 그레옹에 의한 프랑스 측 일변도의 건축과정의 그의 사후 크게 변화된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이다.

#### 3.2. 미르멜 백작의 임명과 새로운 조직의 구성

미르멜 백작(Count August Mimerel IV, 1867-1928)<sup>25)</sup>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프랑스 외교문서에 등장하는 것은 1900년부터이다. 사실 미르멜 백작을 새로운 「한국관」의 건축주체로 추천한 사람은 파리주재 한국총영사 루리나였다. 그는 그레옹 남작의 사망 이후 「한국관」의 새로운 후원자를 물색 하던 중,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당시 프랑스 식민지인 콩고에서 식민지 관련 사업을 하고 있던 미르멜을 접촉하게 됨에 따라, 「한국관」의 새로운 주체로 정부 측에 추천하였던 것이다.<그림 1>



<그림 1> 미르멜 백작과 루리나 총영사

1900년 1월 12일, 한국주재 프랑스 영사국의 르페브르(A. Lefèvre)가 파리주재 한국 총영사 루리나(C. H. Roulina)에게 보낸 문서에는, 미르멜 백작이 새로운 「한국관」의 프랑스 측 총무대원으로 임명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sup>26)</sup> 미르멜 백작의 임명은 동년 1월 24일 박람회 개발국장의 문서에도 발견되는데, 동년 1월 9일 총영사 루리나가 박람회 개발국장에게 보낸 통고문에서, 그레옹의 후임으로 미르멜이 임명되었음을 알리는 기록 등을 볼 수 있다.<sup>27)</sup>

미르멜 백작의 임명과 그의 역할에 대한 보다 정확한 언급

25) Jean Piat, *Quand Mimerel Gouvernait la France*. Paris: Maison du Livre. 1992. p.308; Daniel Kane, *Op. Cit.*, p.57. 미르멜(1867-1928)은 유복한 귀족가문 출신으로, 그의 부친은 나폴레옹 3세의 유력한 조언자이자 유능한 사업가로서 사회적으로도 명성이 있던 인물이었다. 미르멜은 평생을 법률가로 지냈으며, 프랑스의 식민지인 중앙 콩고(Central Congo)에서 식민지관계의 사업을 통해 풍요로운 삶을 살았고, 콩고의 Compagnie N'Goko의 행정위원회 대표로서 봉직하기도 했다.

26) 1900 파리박람회, 한불관계자료-주불공사/파리박람회/홍종우-(한국근대사자료집성4), *Op. Cit.*, p.207. 1900년 1월 12일자 문서(프랑스 영사국의 앙리 르페브르 → 파리주재 한국총영사 루리나).

27) *Ibid.*, p.209. 1900년 1월 24일자 문서(박람회 개발국장의 문서).

18) 1900 파리박람회, 한불관계자료-주불공사/파리박람회/홍종우-(한국근대사자료집성4), *Op. Cit.*, p.204. 1899년 11월 13일자 공문(프랑스 외무성장관 → 플랑시 공사) 및 1899년 11월 18일자 공문(플랑시 공사 → 프랑스 외무성장관).

19) 구한국외교문서, 제19권, 法案1, *Op. Cit.*, pp.586-587, 1899년 11월. 「구주6개국특명전권공사 민영찬 파견의 건」

20) 1900 파리박람회, 한불관계자료-주불공사/파리박람회/홍종우-(한국근대사자료집성4), *Op. Cit.*, pp.205-206. 1899년 11월 29일자 공문(플랑시 공사 → 프랑스 외무성장관).

21) *Ibid.*, pp.206-208. 1900년 1월 5일, 1900년 1월 12일자 문서(박람회총재 위원 → 그레옹 부인).

22) *Ibid.*, pp.206-208. 1900년 1월 29일자 공문(박람회총재위원 → 박람회제정국장); *Ibid.*, pp.213-214. 1900년 2월 7일자 문서(프랑스통상산업체신성 → 박람회총재위원. <그레옹 남작이 체결한 한국관 계약의 파기에 따른 명령서>).

23) *Ibid.*, pp.205-206. 1899년 11월 29일자 문서(한국주재 프랑스 공사 → 프랑스외무성장관). 「(전략) 위원회 부위원장인 민영찬 각자가 공사완결과 지부의 조직을 위하여 루리나 씨와 협의할 목적으로 파리로 출발할 것입니다. (후략)」

24) *Ibid.*, pp.206-207. 1900년 1월 12일자 문서(프랑스 영사국 앙리 르페브르 → 프랑스 외무성장관).

은, 1900년 2월 1일 박람회 프랑스 측 위원이자 상해에서 군관(소령)으로 근무하고 있던 비달(Polyeucte Vidal)이 프랑스 국방성장관에게 보낸 공문에서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sup>28)</sup> 비달 소령은, 그레옹 남작의 갑작스런 죽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의 사망으로 인해 「한국관」의 공사계획에 큰 차질을 주었으며, 이미 그레옹에 의해 여러 작업들이 시작되었고, 상당한 경비가 투입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그는 또한 「한국관」의 건축위원회가 미르렐 백작에게 조선의 주요 생산품을 전시할 공식 전시관만을 건설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을 인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설명함으로써, 「한국관」의 건축이 대폭 축소되어 건축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sup>29)</sup> 이후, 미르렐 백작은 자신의 자금으로 「한국관」을 건축하기로 결정하게 되며, 그레옹 남작의 「한국관」에 대한 이전의 모든 권리를 인수하게 되었다. 이후 미르렐 백작의 임명은 1900년 2월 17일 한국정부의 최종 승인을 얻게 되며<sup>30)</sup>, 「한국관」의 새로운 개발주체로서 공식적으로 등장하게 됨으로써, 「한국관」은 그레옹의 초기 계획안에서 현저하게 축소되어 건축되게 되었다.

그 결과, 미르렐 백작의 총무대원 임명 이후, 프랑스 측 조직위원회에 변화가 있었는데, 1900년 2월 17일 프랑스 영사국 르페브르가 외무성장관에게 보낸 공문에 의하면, 프랑스 측 위원인 비달 소령이 사임하였고, 그 후임에 당시 조선에 거주하고 있던 프랑스인 알레베크(M. Alévêque)가 임명되었으며, 미르렐 백작의 보좌원으로 페레(M.M. Ferret)와 르 블랑(Le Blanc)이 임명되었음을 알리고 있다.<sup>31)</sup> 이와 같이, 미르렐 백작이 새로운 총무대원에 임명되면서, 프랑스 측 건축위원회의 조직은 다음 <표 4>와 같이 새롭게 개편되었다.

### 3.3. 「한국관」의 건축과정

#### (1) 「한국관」의 건축과 민영찬의 역할

「한국관」의 새로운 계획안이 만들어질 무렵,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전시관의 디자인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당시의 사정을 감안해 볼 때, 파리로 파견될 한

<표 4> 1900년 파리박람회 「한국관」 건축위원회의 새로운 명단

위원회	명칭	이름	지위/직업
프랑스 파리 위원회	위원장	C.H. Roulina	파리주재 한국총영사
	위원	E.E. Méne	의사
		Maurice Courant	학자/공사관원
		M. Alévêque	서울주재 프랑스인
	총무대원	Comte de Mimerel	백작
	보좌원	M.M. Ferret Le Blanc	미르렐의 보좌역
한국측 준비 위원회	총서기	Léon Beaupe	
	총재대원	민병석	정2품/의정부참찬
	부총재대원	민영찬	종2품/법부협판
	위원	고영근	종2품/중추원의관
		윤덕영	정3품/봉상사부제조
		아인영	정3품/군부의국과장
		이근배	종3품/중추원의관
정영두	정6품/관원		

국 측의 민영찬과 파리주재 한국 총영사 루리나(C. H. Roulina), 그리고 박람회 측간에 전시관 형식이나 디자인에 대한 의견교환과 결정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망한 그레옹 남작이 박람회 총재와 맺은 협정서를 보면, 박람회 전시를 위한 제반 작업의 설치가 1900년 3월 1일에 모두 끝나야 했다. 그러나, 새로이 사업을 맡은 미르렐과 박람회 간에는 구체적인 협약서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그만큼 상황이 다급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한국관」의 부지는 상 드 마르스(Champ-de-Mars) 구역의 쉬프렌 가로(Avenue-de-Suffren)에 접한 곳이었었는데, 이 지역은 박람회 본 구역과 상당히 떨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군중들로부터도 상당히 소외되어 있던 곳이었다.<sup>32)</sup> 더욱이, 부지가 크게 축소된 것은, 상황에 따라서는 「한국관」의 전시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였던 것이다. 결국,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해보면, 그레옹이 사망하자(1899. 11. 9) 프랑스 측은 한국의 전시관 공사지속 의지를 확인했고(1899. 11. 18), 급히 기존의 부지 중 상당부분을 타국에 양도한 결과 건축부지는 크게 축소되었으며(1900. 1. 5), 이후 새로운 총무대원으로 미르렐 백작이 임명되었고(1900. 1. 12), 곧바로 한국 측 부총재대원인 민영찬이 파리로 출발(1900. 1. 12 이후)했기 때문에, 새로운 전시관의 설계는 적어도 1900년 1월 중순 이후에야 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민영찬의 파리로의 출발이 결정된 것은 1899년 11월 29일이었고, 이때는 이미 양국 간에 민영찬이 파리에서 해야 할 일이 협의되었기 때문에<sup>33)</sup>, 미르렐 백작에 의한 전시관의 공식적인 설계가 있기 이전에, 이미 전시관의 규모와 공사 진행방식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레옹 남작 때와는 달리, 프랑스와 한국 간에 전시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있는 상태에서 미르렐에 의한 설계가 진행되었다는 점이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28)Ibid., pp.210-213. 1900년 2월 1일자 공문(상해의 비달 소령 → 프랑스 국방성장관).

29)Ibid., p.213. 「그레옹씨의 죽음은 박람회에 관해서 한국정부의 계획에 차질을 주었습니다. (중략) 그의 죽음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는 여러가지 작업이 시작되었고, 상당한 경비가 투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르렐씨가 자신의 비용으로 단순히 국가의 주요 생산품들을 모아 놓는데 사용될 「공식적인 전시관」을 건설하는 것에 한하여 그 사업을 다시 맡아주었으면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0)Lefèvre to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17 February 1900) Archives du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Affaires Diverses Commerciales, Expositions.

31)1900 파리박람회, 한불관계자료-주불공사/파리박람회/홍중우-, Op. Cit., p.215. 1900년 2월 17일자 문서(프랑스 영사국 앙리 르페브르 → 프랑스 외무성장관); Ibid., p.218, 1900년 4월 24일자 문서(파리주재 한국 총영사 루리나 → 박람회재정위원회 위원장)에도 상기와 동일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32)Ibid., p.225. <모리스 투랑의 파리박람회 한국관에 대한 글>의 서문 참조.  
33)주 23) 참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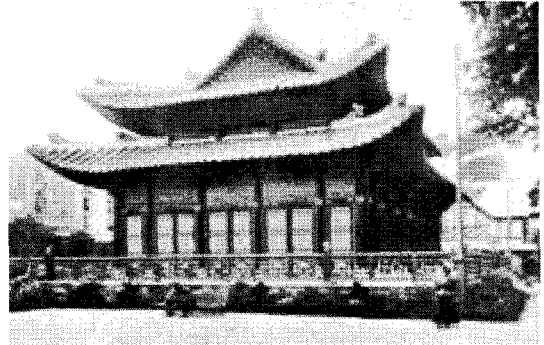
1899년 11월 29일자 플라시 공사의 공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파리에서의 민영찬의 역할이 전시관의 공사 완결과 지부의 조직 재편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은 당시 전시관 건축에 한국이 일정부분의 역할, 즉 전시관의 시공에 참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기록으로서, 상해주재 군관 비달(Polyeucte Vidal)의 증언이 결정적인 단서가 되고 있다. 그는 자국의 국방성 장관에게 보내는 공문에서, 자신이 파리로 떠나는 민영찬과 함께 서울에서 상해까지 여행을 같이 했다는 사실과 함께<sup>34)</sup>, 당시 민영찬이라는 인물에 대한 상세한 소개<sup>35)</sup>, 그리고 그가 급하게 파리로 파견되면서 통역 및 보좌원으로 사르탈레(M. Saltarel)라는 프랑스인과 건축공사에 필요한 조선인 장인 2명을 데리고 갔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는 것이다.<sup>36)</sup> 결국, 비달 소령 자신도 민영찬과 동행한 조선의 장인들을 보았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당시, 민영찬의 파리 도착이 1900년 2월 28일이었으므로<sup>37)</sup>, 양국 간의 협의(1899. 11. 29일자 문서)에 근거하여, 「한국관」의 공사는 적어도 1900년 2월 28일 이후에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인다. 역으로 말하면, 미르멜 백작에 의한 「한국관」의 설계는, 1900년 1월 중순부터 시작되어 적어도 동년 2월 28일 이전까지는 박람회 개발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기 비달 소령에 의해 언급된 두 명의 조선인 장인은 민영찬과 함께 파리 박람회에서 전시관 건립을 위해 함께 일할 예정이었으므로, 틀림없이 조선전통건축에 정통한 목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당시의 정황을 볼 때 민영찬이 조선의 장인을 동행했다는 것은, 그의 파리로의 출발이전에 이미 전시관의 모델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건축된 「한국관」의 모습은, 경복궁 근정전을 재현한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그림 2>, 1900년 1월 중순 경 민영찬이 파리로 출발했다는 것은, 전시관의 건축 모델이 그 이전 양국 간의 협의 과정에서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결국, 상황을 정리해 보면, 민영찬이 이미 합의된 전시관의

건축 모델의 구체적인 건물을 재현하기 위해 조선의 전통목수들을 대동하고 파리로 출발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당시 건축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조선전통건축에 대해 해박한 장인들이 반드시 필요했을 것이라는 상황이 작용한 결과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 측에 의해 파리 박람회 「한국관」이 일정 부분 주도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그림 2> 1900 파리박람회 한국관 전경

## (2) 「한국관」의 설계와 미르멜 백작의 역할

당시 미르멜 백작의 역할에 대한 프랑스 측의 연구에 의하면, 그가 1900년 파리박람회 「한국관」의 건축을 맡게 된 주요 동기가, 그레옹 남작과 같이 「예술적이거나 창조적인 것의 추구」는 분명히 아니었다는 것과, 또한 그레옹과 같이 「쇼맨쉽이나 상업적인 추구를 목적에 둔 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sup>38)</sup> 그리고, 미르멜 백작의 성격에 대해서도, 그레옹 남작과 달리 보수적이었으며, 활동적이라기보다는 신중한 인물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sup>39)</sup>

당시 민영찬과 함께 상해까지 동행했던 비달 소령의 보고에 의하면, 프랑스 측 건축위원회는 미르멜에게 자신의 비용으로 공식관에 한정하여 전시관을 건설해 줄 것과 전시관의 운영을 포함한 사업을 맡아줄 것을 제안했으며, 미르멜 백작도 그러한 방법이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 생각했다고 증언하고 있다.<sup>40)</sup> 즉, 미르멜 백작은 프랑스 측 건축위원회의 제안대로, 그레옹 남작의 거창했던 초기 계획안 중에서 주 전시관 부분만을 선택하였고, 비교적 단순한 공식관의 설계에만 집중하였던 것이다.<sup>41)</sup> 이

34)Ibid., pp.210-213. 1900년 2월 1일자 문서(소령 비달 → 프랑스 국방성 장관). 「중국남부(상해: 연구자 주)에 가기 위해 한국을 떠나면서, 저는 만국박람회 한국정부 대표인 민영찬 공과 함께 여행하였습니다.」

35)Ibid., 「(중략) 민영찬 공은 법무차관이고 중2품의 관원이며, 군부 소속의 육군대령입니다. (중략) 민영찬 공은 영어를 아주 잘 합니다. 그는 프랑스어를 공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짧은 기간에 우리의 언어를 유창하게 표현하게 되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36)Ibid., 「민영찬 공은 사르탈레 씨라는 한명의 프랑스인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 프랑스 인은 (중략) 오랫동안 서울의 우리의 공사관에서 사무원의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사르탈레씨는 만국박람회 한국지부의 부총무대원인 민영찬 공을 보좌하는 것으로, 한국정부로부터 매달 1,000프랑을 받습니다. (중략) 민영찬 공은 자신과 함께 박람회에서 일할 예정인 두 명의 한국 장인들을 데려 갔습니다.(후략)」

37)주 24) 참조.

38)Jean Piat, Op. Cit., pp.308-309.

39)Ibid.

40)Vidal to Minister of War(1 February 1900), Archives du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Affaires diverses commerciales/ Expositions/ Paris/ C-D/1894-1901/ No. 490 E27. 「우리(프랑스 측 건축위원회; 연구자 주)는 미르멜씨가 자신의 비용으로 단순히 국가의 주요 생산품을 모아 놓는데 사용될 공식관을 건설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그 사업을 다시 맡아주셨으면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해결책은 본인에게도 가장 좋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후략)」 (한글 번역은, 「1900 파리박람회」, 불관계자료-주불공사/파리박람회/홍종우-, Op. Cit., p.213. 1900년 2월 1일자 문서(소령 비달 → 프랑스 국방성장관)를 참조함.)

41)Ibid., 이에 대해서도 비달 소령은, 당시 프랑스 측 건축위원회와 미르멜 백작이, 사망한 그레옹 남작의 초기 계획안 중에서, 인천 제물포의

러한 과정을 보면, 그레옹 남작 때와는 달리, 미르렐 백작의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이었고 축소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안타깝지만 당시 어떠한 자료에도 미르렐 백작에 의한 전시관의 건축 모델, 즉 한국의 어떤 전통건축물이 재현되기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완성된 「한국관」이 경복궁 근정전을 재현한 것이었기 때문에, 건축 모델이 조선왕조의 정궁인 경복궁의 정전(근정전)이었다는 것은 알 수 있으나, 어떤 경위로 근정전이 건축 모델이 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비달 소령의 증언을 재고해 보면, 건축위원회 측에 의해 주 전시관에 한정하여 「한국관」이 구성될 것이 결정되었다는 점과, 이러한 결정을 미르렐 백작에게 조건의 형식으로 통보했다는 점, 그리고 미르렐은 위원회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한국관」의 건축에 임했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당시의 정황상 미르렐 자신은 전시관의 모델을 결정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 명확하며, 그럴 경우 건축 모델의 결정은 한국의 민영찬을 포함한 프랑스-한국의 건축위원회에 의해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영찬과 한국인 장인 2명이 파리로 파견된 것은, 전시관의 건축 모델을 이미 알고 출발했을 것이라는 점과 건축공사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출발했을 것이라는 점이 거의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전시관의 설계에 대한 사항이 결정된 후, 미르렐 백작은 신속하고 열정적으로 「한국관」의 건립 작업에 임했다. 그는 당시 파리와 베트남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던 건축가 유진 페레(Eugene Ferret)를 고용하여 「한국관」의 설계를 위탁했으며<sup>42)</sup>, 그레옹 남작의 보좌원이었던 트레몰레를 해고하고 새로이 페레(M.M. Ferret)와 르 블랑(Le Blanc)을 자신의 보좌원으로 임명하는 조치를 취하였다.<sup>43)</sup> 또한, 전시물을 모으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여 한국 정부, 플랑시 공사, 박람회위원회의사 멘느(E.E. Méne)로부터 전시품을 유치했고, 1866년 강화섬에서 가져온 한국의 고서 류를 전시하는 등<sup>44)</sup>, 한국의 다양한 산물을 전시하는데 상당한 공헌을 했던 것이다.

## 4. 미르렐 백작의 「한국관」의 건축적 특징

### 4.1. 파리위원회 위원 모리스 쿠랑의 「한국관」 관찰기

당시, 건축된 「한국관」을 직접 방문하고 관람한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기록으로 남겼던 인물로는, 프랑스 측 건축위원회

조선인 가로를 재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42) Paul Gers, Op. Cit., p.206; Daniel Kane, Op, Cit., p.57. 당시, 건축가 유진 페레(Eugene Ferret)는 프랑스 파리와 자국의 식민지인 베트남 등 인도지나에서 활동하던 인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베트남 「사이공 극장(Saigon Theater)」이 있다.

43) 1900 파리박람회, 한불관계자료-주불공사/파리박람회/홍종우-, Op. Cit., p.215. 1900년 2월 17일자 문서(프랑스 영사국 앙리 르페브르 → 프랑스 외무성장관)

44) Ibid., pp.221-223. 당시 한국관의 <전시물 품목>을 참조할 것.

위원인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sup>45)</sup>이 있다. 그는 외교관의 신분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영사관 및 공사관 등에서 근무하면서 한국, 일본, 중국의 고문서를 연구한 문헌학자였으며, 당시 누구보다도 조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잘 알고 있던 인물이었다. 그의 「한국관」에 대한 관람기는, 당시 직접 관찰하고 기록한 글이라는 점에서, 「한국관」의 건축구성과 특징을 매우 생생하게 전해주는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평가되며<sup>46)</sup>, 이를 당시의 건축도면과 비교해 보아도, 매우 정확히 「한국관」을 서술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모리스 쿠랑의 「한국관」 관찰기를 건축물의 구성 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리스 쿠랑은, 당시 「한국관」의 건축 구성이, 경복궁의 국왕의 실(근정전)을 모방한 주전시관과 국왕들의 위폐를 모시는 사당으로 구성되어 있었음을 밝히고, 주전시관이 근정전과 같이 기단 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 등을 설명하고 있다.<sup>47)</sup> 또한, 주 전시관에 대한 상세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한옥의 지붕선, 용마루곡선, 부채의 생김새, 색조, 기둥의 구성 및 장식, 단청, 실내, 그리고 건축물의 전체적인 느낌 등을 매우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sup>48)</sup> 쿠랑의 기록

45) 모리스 쿠랑은 1890년 5월 23일 조선주재 프랑스 영사관의 서기관 서리로 임명되어, 1892년 2월 11일까지 근무하였다. 그는 영사관 근무 당시, 조선의 고문헌 등을 연구하였으며, 1891년에는 『조선서지(La Bibliographie Coreenne)』를 출판하기도 했다. 이후, 프랑스와 조선에 머물면서,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 「한국관」의 건축위원회의 일원으로 전시관 건립에 큰 도움을 주었고, 그 공로로 1901년 5월 26일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4등 훈장을 받기도 했다. 이후 동양문헌학으로 1911년 박사 학위를 받고 리용 대학 중국어과 교수, 리용 학사원 회원, 프랑스-중국 협회의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46) 모리스 쿠랑의 관찰기는 당시 발견되었던 다음의 문헌에 전문이 기록되어 있다. Maurice Courant. "Le Pavillon Coréen au Champ-de-Mars" in Souvenir de Seoul, Coree. 1900; L'Exposition de Paris. 3 vols. Paris: Librairie Illustrée, 1900; 상기의 관찰기는, 최근 국사편찬위원회 「한불관계자료-주불공사·파리박람회·홍종우」(한국근대사자료집성4: 2001)에도 원문과 번역문이 게재되어 있다.

47) L'Exposition de Paris. 3 vols. Paris: Librairie Illustrée, 1900. p.315; 1900 파리박람회, 한불관계자료-주불공사/파리박람회/홍종우-, Op. Cit., pp.228-229. 「(전시관에) 들어가기 전에 궁전의 화려한 실인 국왕의 실 하나 자체를 복사한 단일 건물, 옛 왕들을 모시기 위한 사당들을 보라. 난간과 출입용 계단이 있는 돌로 된 정사각형 기단이 있다. 중앙에는 주변에 넓은 산책 장소를 마련해 놓은 정사각형 건물이 있다.」

48) Ibid., 「올록볼록한 회색 기와를 올린 지붕이 있다. 그 지붕은 빗물의 흐름을 인도하며, 햇살과 음영은 지붕의 단조로운 색조를 바꾸어주고 있다. 지붕은 높으며, 매우 경사져 있고, 용마루 모서리는 수평으로 되어 있다. 지붕은 전체길이의 1/3 지점에 우아한 곡선으로 하강하는 처마로 처리되어 있으며, 네 곳의 모서리에는 구운흙으로 만든 환상적인 장삼이 세워져 있다. 약간 무거운 이 지붕은 생동감 있는 붉은 빛의 원기둥 위에 지지되어 있으며, 골조인 수평부재에는 조각이 새겨져 있고, 하얀색, 검은색, 청색, 녹색 등 다양한 종류의 화려한 색으로 칠해져 있다. 우리가 가까이에서 관찰할 때 놀라게 되는 지붕에 경쾌함을 부여하는 이 화려한 색은, 나는 어떻게 만드는지 모른다. 이 화려한 색은 무엇보다도 한국의 장엄한 햇빛 아래에서 조화를 이루며, 약간 육중한 지붕에 활기를 부여하여 돋보이게 하고 있다. 이곳에 있는 건물은 실제의 건축물이다. 왜냐하면, 벽은 회반죽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항상 건물의 전후 2면에는 평평한 나무를 사용하여 지반으로부터 1m20cm 지점에 일종의 격자창을 만들어 높은 문을 달아 놓았기 때문이다. 건축물



중 중요한 부분은, 그가 보기에 「한국관」이 “실제의 건축물”이었다는 점이다. 즉, 당시의 「한국관」이 매우 정교하게 경복궁 근정전을 재현한 것으로서, 건물의 비례, 지붕의 물매, 사용한 재료나 건축의 구성, 그리고 내부의 구성이나 내, 외부에 사용된 다양한 장식에 이르기까지 모두 당시 한국의 궁전건축을 충실히 재현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민영찬이 대동한 한국의 전통 장인의 솜씨라고 밖에 할 수 없는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마치 실제 건물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 한 인상을 보여주는 「한국관」은, 동양문화에 정통했던 모리스 쿠랑에게 강한 인상을 부여했음은 물론, 당시 함께 전시된 중국이나, 일본의 전시관과도 명확히 구분되는 한국만의 고유 건축양식이라는 점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sup>49)</sup> 더욱이 모리스 쿠랑은 당시 「한국관」의 특성을 “겸양의 미학”으로 정리하면서, 자연을 존중하고 그로부터 세련된 문명을 만들어 낸 한국이 이 건축물을 통해 당시 유럽제국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다주었음을 지적하고 있다.<sup>50)</sup>

이상과 같이, 모리스 쿠랑은 자신의 「한국관」에 대한 인상을 매우 생생하게, 그리고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중국, 일본의 건축과 비교하면서 서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쿠랑은 「한국관」에 대해서도, 정확한 건축사적 정보를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건축물의 배치 및 구성, 그리고 용도에 대한 설명이 매우 정확하며, 건축요소나 재료 등의 서술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어, 당시 「한국관」의 건축적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당히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이하, 모리스 쿠랑의 관찰기와 당시의 도면을 참조하면서, 미르텔에 의한 「한국관」의 건축적 특징에 대해 고찰해보기로 한다.

내부는 외부와는 달리 단순하게 보인다. 기름막인 종이로 포장하고 도배된 바닥, 붉은 기둥과 가장자리의 격자창, 색칠되고 조각된 격자천장으로 이루어져 있다.」(괄자의 강조는 연구자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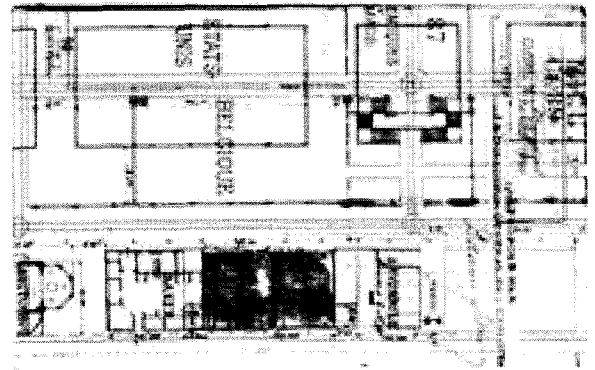
49)Ibid., 「이 건축양식은 기원이 중국이고, 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일본인들도 그것을 모방하였다. 그러나 비록 서쪽(중국)과 동쪽(일본)의 두 제국이 보다 넓고 화려한 전시관 건축물을 만들었지만, 무엇보다도 일본은 놀라운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중국의 것을 변형시켰고 그 특성을 다양화하였으며,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단순하게 또는 풍부하게 장식하는 법을 알았지만, 한국은 이 전시관과 같은 스타일로 엄격함을 유지하였고, 우아함을 지니고 있는 훌륭한 심미안을 보존하였다. 더욱이 한국의 건축은 또한 다양성에 정통해 있다. 그래서 그 만큼 항상 한국은 자연적인 생생함을 훌륭하게 이용하였다」(본문의 괄호와 글자의 강조는 연구자에 의함)

50)Ibid., 「한국의 전시회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겸양의 교훈이 아닐까. 조선(은 역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거치면서, 그 국민은 스스로 견재해 있으며, 과거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여 일본에 전수한 예술과 문명을 그 국민은 잘 보존하고 있다. 근년에 유럽은 그것을 경시하였으며, 습관적인 자부심에서 그것을 스스로 야만적인 것으로 취급하려고 했다. 처음으로 우리들 눈에 조선의 그것이 모습을 드러내었을 때,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복합적이고, 세련된 문명의 기념물로 등장했던 것이다. (중략) 대한제국 정부는 조선이 오랜 시기동안 문명화되었고, 우리들의 근대적 관념과 우리의 근대적 산업들에 완전히 동화될 준비가 된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대한제국의 정부는 우리의 오만함에 친절하게 교훈을 주었으며, 그들도 동시에 교훈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괄호와 글자 강조는 연구자에 의함)

## 4.2. 「한국관」의 건축적 특징

### (1) 「한국관」의 부지

실현된 「한국관」의 부지는, 박람회 상 드 마르스(Champ-de-Mars) 지구의 최북단에 위치한 슈프렌 가(Avenue-de-Suffren)에 면하고 있으며, 초기 그레옹 남작 때와 비교해 부지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원래의 부지 양측은 프랑스 비누제조회사(Savonnerie)의 전시장과 영국의 베이커(Baker)사의 전시장으로 각각 전용됨으로서, 「한국관」의 부지는 원래의 대지 중 한 가운데만을 점용하게 되었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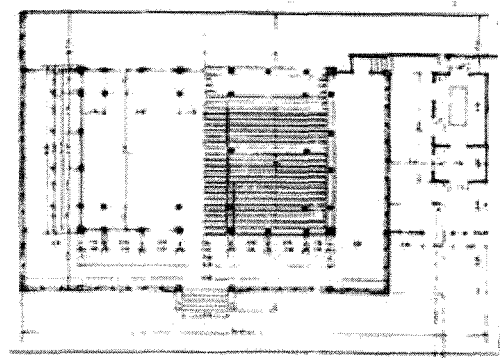


<그림 3> 1900 파리박람회 한국관의 부지 위치

이와 같이 「한국관」의 부지는 처음보다 대폭 축소되었지만, 전시관의 공식적인 부분만을 건축하기 위한 대지로서는 큰 지장이 없었다고 생각된다. 부지 양측으로 각국 주 전시관의 부속 전시시설들이 설치되기는 했지만, 전시관으로서 필요한 기능은 충분히 수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부지 앞으로는 벨기에 전시관이 있었으며, 그 밑으로는 세느강으로 내려가는 계단과 작은 데크들이 연결되어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 (2) 「한국관」의 평면 구성

「한국관」은 크게 주전시장과 그 오른쪽의 부속건물 1등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다지 크지 않은 주전시장의 내부는 2개의 실로 단순하게 구성되었음을 볼 수 있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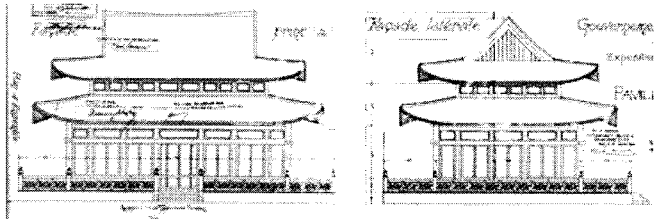
<그림 4> 한국관의 평면도

「한국관」에 대한 모리스 쿠랑의 설명과 같이, 주 전시관은 “궁전(경복궁)의 화려한 국왕의 실 하나(근정전)”를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서, 내부는 주로 한국산 물품의 전시를 목적으로 계획되었으며, 외부에는 별채를 두어 조선의 옛 국왕들의 위패를 모셔놓은 사당으로 구성하였고, 사당의 내부도 전실과 주실로 이루어진 단순한 구성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 전실실은 건물 외주에 총 24개의 기둥이 배치되어, 조선전통건축의 기둥간격을 무시하고 있으며, 내부에는 총 10개의 기둥이 배치되어 있어 구조적으로는 한국전통방식과 큰 관계가 없다. 이는 전시관이 갖는 가설건축의 성격으로 인해 나타난 특징으로 보인다. 건물 주위에는 석재로 된 사각형의 기단이 있고, 그 위에 난간과 출입용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등 당시 「한국관」은, 모리스 쿠랑의 기록과 같이, 조선의 궁전(경복궁 근정전)을 재현한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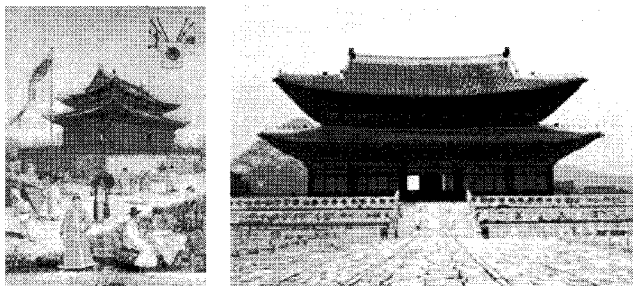
### (3) 「한국관」의 입면 구성

「한국관」의 입면구성을 보면, 경복궁 근정전을 재현해 놓은 것이었다는 사실을 곧 알 수 있다.<그림 5>



<그림 5> 한국관의 정면도 및 좌측면도

모리스 쿠랑은 「한국관」의 입면에 대한 설명에서, “지붕은 중층 지붕의 높고 매우 경사져 있으며, 용마루 모서리는 거의 수평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지붕 길이의 1/3정도에서 우아한 곡선으로 하강하는 각도로 처리” 되어 있어 전체입면에서 이곳 4개의 지붕모서리가 가장 인상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었다. 또한, 지붕을 지지하는 원기둥에는 생동감 있는 붉은 색이 도장되어 있었고, 수평부재(평방) 등에는 조각이 설치되어 있어 여기에 흰색, 흑색, 청색, 녹색 등 이른바 조선의 전통 단청이 화려하게 채색되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 결과 2층 규모의 육중한 지붕이 경쾌하게 보이게 되는 효과와 함께, 단청의 화려한 색채가 지붕에 활기를 불어넣어 전체적으로 격식은 물론 화려함을 나타내는 효과를 거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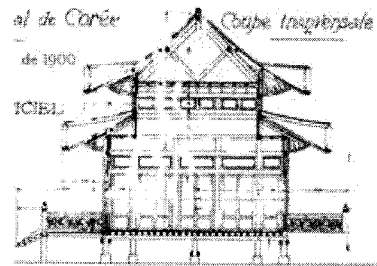


<그림 6> 한국관의 투시도(1900) 및 현 경복궁 근정전

실제의 도면을 보면, 전시관이 가설 건물인 관계로, 구조적으로는 완벽한 조선전통식이 아닌 다소 생략되고 단순하게 처리되어 있기는 하지만, 입면에서는 조선 왕실의 가장 중요한 건물을 사실적으로 모방함으로써, 당시 대한제국을 대표하는 전시관으로 만들고자 했던 노력을 엿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 (4) 「한국관」의 단면 구성

그레옹 남작의 초기 계획안에 비해, 미르렐 백작의 실현안에는 건물의 단면도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단면도를 살펴보면 실제로 시공하기 위한 실시도면의 성격의 것이기는 하지만, 한국 전통건축의 구조방식을 그대로 모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단면의 특징은 지붕면이 양식 트러스로 구성됨으로써, 서양식 구조로 처리되어 있다는 것과, 재료도 공장에서 가공된 규격품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7>



<그림 7> 한국관의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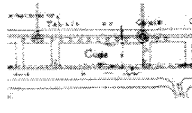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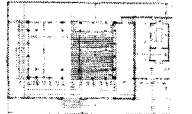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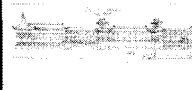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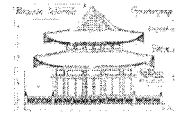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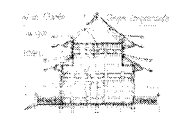
결국, 전시관이 지닌 가설건축의 성격으로 인해, 지붕재는 가벼운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며, 기둥이나 보, 가새 등의 구성이 매우 생략된 채 간략히 처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외부에서 보았을 때, 가능한 한 조선의 왕실을 대표하는 건물과 유사하게 보여야 할 뿐, 그 이면의 구조는 크게 중요시 하지 않은 결과로 생각되며, 이러한 방식은 당시 박람회 때 중국, 일본 등의 전시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던 방법이었다.

### 4.3. 미르렐 백작에 의한 「한국관」의 종합분석

상기 미르렐 백작에 의한 「한국관」의 건축적 특성을 초기 그레옹 남작의 계획안과 비교, 정리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프랑스의 서로 다른 두 인물에 의한 「한국관」은, 이들이 지닌 이념과 현실적 상황이 계획안에 잘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레옹의 계획안은, 자신의 1889년 파리박람회 이집트관의 구성에 근거하여 디자인한 것으로, 주로 상업적인 이념 하에 만들어 진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레옹의 사후, 미르렐 백작에 의한 실현 안은, 백작 자신의 의사보다는 프랑스-한국의 건축위원회의 의견이 보다 강하게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한국 측이 일정 부분 전시관 공사에 참여하게 되는 등, 초기의 프랑스 일변도의 건축 진행방식에서 벗어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5> 그레옹 남작과 미르렐 백작에 의한 「한국관」의 비교분석

구분	그레옹의 계획안	미르렐의 계획안	주요 특징
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드-마르스 지구</li> <li>- 슈프렌 가의 3개의 대지</li> <li>- 외국전시관 가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드-마르스 지구</li> <li>- 슈프렌 가의 1개의 대지</li> <li>- 외국전시관 가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레옹 남작 사후 대지의 축소</li> <li>- 인천 제물포 재현관의 삭제</li> <li>- 미르렐 백작의 계획안은 축소</li> </ul>
평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레옹의 한국관 평면은 남아 있지 않음</li> <li>- 전시관은 공식적인 부분과 흥미위주의 토속적 부분으로 구성됨</li> <li>- 주 전시관의 모델은 고종의 여흥궁전임</li> <li>- 흥미위주의 토속적인 부분의 모델은 인천 제물포의 조선인 가로임</li> <li>- 그레옹의 이집트관의 구성과 유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 전시관과 사당으로 구성됨</li> <li>- 주 전시관에는 한국관의 전통산물을 전시</li> <li>- 사당에는 조선국왕들의 위패가 전시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레옹 남작의 사후 미르렐 백작에 의해 주 전시관에 한정해 전시관 구성</li> <li>- 미르렐 백작의 한국관은 경복궁 근정전을 모델로 구성됨</li> <li>- 평면 배치는 기단과 계단, 전시관, 사당으로 구성됨</li> </ul>
입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구성이 조선전통식이 아님</li> <li>- 2층 구성으로 지붕 등의 비례가 비전통적임</li> <li>- 그레옹의 설계이념이 전체적으로 반영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시공에 민영찬과 조선전통장인이 참여함</li> <li>- 조선전통건축의 재현을 충실히 표현함</li> <li>- 조선전통건축의 채색, 문양, 조각 등이 나타남</li> <li>- 전시관의 가설건축으로서의 특성이 나타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레옹 남작의 한국관</li> <li>- 중국풍의 시노와즈리의 디테일을 적용함</li> <li>- 1889년 이집트관의 영향이 나타남</li> <li>- 상업적 식민지주의의 이념이 반영됨</li> <li>- 미르렐 백작의 한국관</li> <li>- 한국 측이 건축 과정에 참여됨</li> <li>- 전시관 모델로 왕실의 건물이 선택됨</li> <li>- 조선전통건축을 충실히 재현함</li> <li>- 입면에 전통건축의 비례가 나타남</li> </ul>
단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레옹의 한국관 단면은 남아 있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양식 구조의 채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르렐 백작의 한국관</li> <li>- 가설건축의 구조방식</li> <li>- 양식 트러스구조의 채택</li> <li>- 부재의 간이화</li> <li>- 서양식 디테일</li> </ul>

미르렐 백작의 실현 안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은, 조선전통건축을 가능한 한 충실히 재현하고자 한 것으로서, 평면과 입면에서 나타나는 형태 이미지는 조선전통건축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러나, 평면도나 단면도에서의 건축구조는, 전시관이라는 한시적 특성으로 인해 가설건축구조의 형식으로 만들어졌으며, 부재의 크기나 스케일, 그리고 구법 등은 서양의 구조방

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르렐 백작의 「한국관」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실현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전시관의 특성상, 설치와 해체의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간략화 된 디테일이나 재료의 사용이 불가피하지만, 완성된 건물이 무엇을 표상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실현된 계획안의 의미는 달라진다. 건축된 「한국관」은 조선궁궐건축을 모사한 것으로, 이것이 한국을 표상하려는 프랑스 측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그레옹 남작의 초기계획안과 동일하게 한국전통건축에 대한 프랑스 측의 이해, 즉 식민지주의 의식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르렐의 「한국관」은 경복궁 근정전을 재현하고 있어 초기의 그레옹의 것과는 그 성격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당시의 긴급했던 사정으로 인해 부지의 규모가 현저히 축소되었다는 점에서 모델이 되는 건축물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가장 빨리 전시관을 건축할 수 있는 방법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현된 「한국관」이 그레옹의 안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당시 대한제국 측 민영찬의 역할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구사할 수 있었고, 조선인 장인 2명을 함께 대동함으로써 「한국관」의 건설에 상당부분 기여했다. 그 때문에, 그레옹이 디자인 했던 계획안, 즉 조선전통건축에서는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국적이고 오락성이 강한 전시관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전시관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모리스 쿠랑의 지적과 같이, 미르렐의 「한국관」에는 현실적인 “실제의 건축물”이 재현의 형식으로 유럽인들 앞에 등장했던 것이다.

## 5. 결론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 「한국관」의 건축에 있어, 미르렐 백작에 의해 실현된 「한국관」의 건축경위 및 전시관의 건축적 특징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르렐 백작에 의한 「한국관」은, 그레옹 남작의 계획안과 같이, 대부분 프랑스 측의 주도 하에 그들의 자금과 건축시스템에 의해 주도되었지만, 이후 대한제국정부가 주도적으로 건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조선왕실의 상징인 근정전이 한국을 대표하는 전시관으로 건축되었으며, 그 결과 대한제국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모리스 쿠랑의 지적과 같이, 대한제국은 이 전시관을 통해 당시 유럽인들에게 “복합적이고, 세련된 문명의 기념물로 등장” 하게 되었다.

둘째, 미르렐 백작의 「한국관」은, 그레옹의 것과는 달리, 민영찬과 전통장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현실적인 건축물로 탄생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그레옹의 계획안과 같은 프랑스 측의 조선전통건축에 대한 일방적인 이해, 즉 상업적 식민지주

의의 건축이념의 표현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이는, 당시 양국의 건축위원회에 의해 조선왕실의 주요 건물인 근정전을 충실히 재현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셋째, 미르렐 백작의 「한국관」의 부지는, 양국의 건축위원회에 의해 전시관의 공식적인 부분만을 건축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그레옹 남작의 원래의 대지 중 한 가운데만이 전시관 구역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그레옹의 사망에 의해 나타난 가장 커다란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미르렐 백작의 「한국관」의 평면구성은, 주 전시관과 사당 등 2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내부에는 조선 산물과 과거 국왕들의 위폐가 전시되었다. 이를 그레옹의 초기계획안과 비교해 보면, 전시관 규모에 있어서 상당히 작아졌다는 것과 당시 외국관의 디자인 기법인 각국의 전통건축의 재현방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이 주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당시 평면도에서 보이는 「한국관」의 특징은, 기단과 계단, 그리고 건물이라는 기본적인 요소는 갖추어졌으나, 가설전시관이라는 건축의 성격상, 건축모델이 되었던 근정전의 평면구조를 그대로 재현하지는 못하였으며, 이는 또한 실의 내부가 전시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관계로 내부의 구조가 달라졌던 것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미르렐 백작의 「한국관」의 입면은, 당시 전시관의 관찰기를 작성했던 모리스 쿠랑의 기록에 의해 자세한 전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입면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지붕에 대한 기록이 상세히 기록되었는데, 지붕의 곡선, 지붕에 설치된 각종 장식, 지붕 하부의 목구조, 단청의 색, 그 하부의 기둥과 문에 이르기까지 당시 「한국관」의 외관의 특징을 명확히 알 수 있었다. 쿠랑의 기록에 의하면, 미르렐의 「한국관」은 당시 중국, 일본의 전시관과도 명확히 구분되고 있었으며, 박람회 관람했던 유럽인들에게 대한제국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어주는 효과를 거두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섯째, 그러나 미르렐 백작의 「한국관」의 단면은, 전시관이라는 건축물의 속성으로 인해, 한국전통건축의 목구조를 그대로 재현하지는 못했으며, 지붕면에는 양식 트러스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각 부재의 형상이나 구성도 약식화된 부재 또는 양식구조의 간략화된 방식이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1900년 파리박람회 「한국관」은, 프랑스의 자금 및 건축조직에 의해 완성된 전시관으로서, 대한제국이 건축 과정에 일정부분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프랑스가 한국에서 수행한 건축 활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관」은, 한국건축사상 해외에서의 최초의 건축물이었으나, 본질적으로는 프랑스의 동아시아에서의 건축 활동의 결과였다는 것이 1900년 파리박람회 「한국관」이 지닌 건축사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1. Archives du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Affaires diverses commerciales, circulaires diverses E27 490 C-D, 1894-1901.
2. Archives Nationales de France, Paris, F/12/4224, F/12/4357.
3. Bibliothèque Nationale, Fol V 4222.
4. Daniel Kane, Display at Empire's End: Korea's Participation in the 1900 Paris Universal Exposition, in Sungkyu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Vol.4. No.2, 2004, Academy of East Asian Studies.
5. Kyungdon Jin, Mina Park, A Literature Study on the Korean Pavilion at Paris 1900 Exposition Universelle, in The 6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Architectural Interchanges in Asia. 25th, October 2006, Daegu.
6. Jean Piat, Quand Mimerel Gouvernait la France. Paris: Maison du Livre, 1992.
7. Maurice Courant. "Le Pavillon Coréen au Champ-de-Mars" in Souvenir de Seoul, Corée, 1900
8. Paul Gers, 1900, Corbeil: E. Crete.
9. Richard D. Mandell, Paris 1900, the Great World's Fair,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67.
10. L'Exposition de Paris, 3 vols, Paris: Librairie Illustrée, 1900
11. 中村惠三, 1900年パリ万国博覧會の建築, 足利工業大學出版, 1987年.
12. 吉田光邦, 編図說万国博覧會, 思文閣出版, 1993年.
13. 日本農商務省編, 千九百年巴里万国博覧會臨時博覧會事務局報告書, 1902年.
14. 고종순종실록, 고종 30년(1893년) 1월24일자.
15. 구한국외교문서, 제19권, 法案1,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6. 한성순보, 1884년2월21일자(음력), 제15호.
17. 한불관계자료-주불공사·파리박람회·홍종우(한국근대사자료집성4), 국사편찬위원회, 2001년.
18. 김영나, 서양과의 첫 만남, 한국근대미술과 시각문화, 조형교육, 2002년.
19. 진경돈·박미나, 근대초기 파리만국박람회(1900) 「한국관」의 건축과정과 초기설계안의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7권3호, 통권68호, 2008년6월.

<접수 : 2008. 6. 30>